

“온라인도박 허가제 도입...경쟁력·투명성 업”

1934년 국영기업 통해 스포츠베팅 시작
1995년 도박위원회 신설...170억대 규모
세금 부과 ↑·불법행위는 더 강력히 처벌
정부기관과 연계 승부조작 방지 공동노력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인구 3만5000여명의 작은 도시 스트렝네스. 스웨덴 도박위원회(Lotteri Inspektionen·The Swedish Gambling Authority)가 자리 잡은 곳이다. 9일 오후(현지시간) 이 곳에서 만난 도박위원회 안더스 심스 홍보책임자와 변호사인 카타리나 아브라함손 법률 및 스포츠 승부조작 담당은 무엇보다 “도박 참여자 보호”를 강조했다.

●도박법 개정...온라인 도박 허가제 도입

스웨덴 도박위원회는 정책 입안과 실행, 시장 규제와 감시, 불법행위 단속 등 도박 관련 사항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스웨덴의 놀이’라는 뜻을 지닌 이름의 국영기업 스벤스카 스펠(Svenska Spel)을 통해 1934년 일찌감치 스포츠베팅을 시작한 스웨덴은 당시부터 사행산업을 국가가 직접 관리했다. 참여자를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방지하며 세수를 통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였다. 1970년대 사행산업 규모가 커져 좀 더 체계적인 관리와 감시를 위해 1995년 복권이사회를 확대 개편, 도박위원회를 신설했다.

인구 1000만명에 채 미치지 못하는 스웨덴의 사행산업 규모는 2017년 현재 170억 원 규모, 2016년 대비 3.2%가 늘어났다. 중요한 것은 불법 규모(55억5000만원)가 12.8%나 증가했고, 불법 스포츠도박이 그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도박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커졌음은 물론이다. 이에 스웨덴 정부는 도박법을 개정, 내년부터 온라인도박 허가제를 도입한다. 카타리나 아브라함손 담당은 “스마트 폰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스포츠베팅 등 온라인 도박시장도 커져가고 있다”면서



스웨덴 도박위원회(The Swedish Gambling Authority) 안더스 심스 홍보책임자(왼쪽)와 법률담당 겸 승부조작방지위원회 카타리나 아브라함손 위원장 내정자, 카타리나 아브라함손 위원장 내정자가 2019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새 도박법과 시행규칙을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다.

스트렝네스(스웨덴) |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하지만 해외 업체가 시장에 들어오고 불법적 행위도 늘어간다.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밝혔다. 온라인도박 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자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불법행위는 더욱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규제 중심에서 양성화·합법화로 시각을 넓히는 대신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등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도박 중독 방지가 정책 목표”

이는 중독 등 도박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향에서 이뤄진다. 아브라함손 담당은 “해외 사업자는 중독과 파산 등 참여자를 보호할 수 없다”면서 “실질적으로 참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도박위원회의 임무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도 의무를 부여했다.

안더스 심스 책임자는 “참여자는 온라인 등록을 한 뒤 도박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이들이 참여하는 모든 사이트는 중독 경고 문구 등을 표시한다. 각 사이트는 연

계되어 참여자의 도박 행태와 중독 위험성 정보 등을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를 참여자에게 정기적으로 경고한다. 또 심스 책임자는 “참여자의 행태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베팅액의 상한선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이트 접속 시간 제한 등 제약을 가한다”고 말했다.

사업자들은 이와 관련한 모든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도박위원회는 이를 수시로 점검한다. 불법행위는 은행 등 금융권을 통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해 좀 더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을 찾았다.

●“승부조작 방지 위한 공동의 노력”

다른 유럽국가들처럼 스웨덴에서도 가장 큰 인기를 모으는 스포츠경기는 축구다. 핸드볼, 농구, 아이스하키, 테니스 등도 대중적 종목이다. 이와 관련한 스포츠 베팅 역시 도박위원회의 주요 업무에 포함된다. 스포츠경기 승부조작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업무도 물론 총괄한다. 심스 책임자는 “승부조작 등 부정경기가 의심될 경우 스벤스카 스펠은 해당 팀들에 대한 일련의 이후 베팅을 막는다. 기존 베팅액도

반환한다”고 설명했다. 각 경기단체들 역시 현장에 감시인을 파견하고 모든 경기를 녹화해 부정 여부를 확인한다.

도박위원회는 나아가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검찰, 경찰, 재무부, 사회부 등 다수의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승부조작 방지 위원회를 산하에 신설했다. 이를 이끄는 책임을 맡게 된 아브라함손 담당이 위원장 내정자다. “위원회의 실무 체계를 위해 현재 논의 중이다”고 밝힌 그는 “프로스포츠 경기에서 승부조작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는다”면서도 “승부조작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각 경기단체와 선수들도 이런 인식을 갖도록 교육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스웨덴의 사행산업 특히 스포츠도박 관련 정책은 민간의 자발적 의무 이행과 이를 관리, 규제하는 당국이 함께 노력함으로써 참여자들의 도박 중독을 막겠다는 의지로부터 나온다. 아브라함손 담당은 “불법행위를 하면 시민으로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렝네스(스웨덴) |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결국 모든 정책의 방향과 목표는 중독 방지에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효율적인 정책과 대안으로 도박 중독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스포츠베팅 역시 “참여자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 안에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민간사업자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향하고 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스포츠베팅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한 스웨덴 이 야기다. 스웨덴은 관련 법제 개정으로 그동안 국영기업이 독점적으로 운영해온 온라인 스포츠베팅 시장의 문을 넓혀 민간사업자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도박 중독과 불법행위를 더욱 강력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막겠다는 또 다른 대안이기도 하다. 이 같은 스웨덴의 사례는 국내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불법 스포츠도박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시점이라서 더욱 그렇다. 불법행위를 최대한 방지하고 참여자들의 도박 중독을 막으려는 스웨덴 당국의 노력을 현지에서 취재했다.

후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청춘스포츠

국경 초월한 축구사랑, ‘서울대 여자축구팀’ 에밀리

한국대학여자축구클럽 파이널서 눈길
“조국 영국에서처럼 축구는 내 운명”

지난 3일, 여의도의 운동장에서 한국대학 여자축구클럽연맹(이하 KUWFCF)이 주관하는 제1회 KUWFCF 파이널 매치가 열렸다. 파이널 매치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난 3차례의 KUWFCF 주관대회(HUPS WOMEN'S CHAMPIONSHIP·제10회 양구 국토정중앙기·제6회 전국대학여자축구대회 사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들이 참가했다. 출전팀은 서울대학교 SNUWFC(이하 서울대), 인하대학교 INHA-WICS(이하 인하대), 이화여자대학교 ESSA(이하 이

화여대)였다. 이번 대회는 3팀의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하대가 예선에서 서울대(1-0 승)와 이화여대(승부차기 4-2 승), 그리고 결승에서 또 다시 만난 서울대(승부차기 3-1 승)를 상대로 연달아 승리를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많은 대학생 선수들 중 유독 이목을 끄는 선수가 있었다. 바로 서울대의 에밀리아 그 주인공이다. WK리그를 제외한 국내 여자축구경기에서는 외국인 선수들을 찾아보기 어렵기에 그는 더욱 주목을 받았다. 이번 대회가 첫 출전인 에밀리아는 “오랫동안 축구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시 축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아주 흥합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되어 매우 기분이 좋다”며 만족스러운 심경을 밝혔다. 서울대 SNUWFC에 들어오게 된 동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내 조국인 영국에서 축구를 계속 해왔었다. 하지만 한국에는 여자축구 팀이 많지 않았다. 축구가 하고 싶어 이 팀에 진심으로 들어오고 싶었다”며 축구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팀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는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 팀에서 계속 함께하고 싶다.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더욱 많은 경기에 참가하고 싶고 축구 실력이 더 좋아졌으면 한다”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했다. 김준희 대학생 명예기자 kimjh370@naver.com



축구 중추국 영학출신의 유학생 에밀리아는 “한국에서 축구를 하게 되어 너무 즐겁다”며 축구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사진제공 | 에밀리아

(한국대학여자축구클럽연맹)
KUWFCF의 특별한 손님
국회사무처 축구 동호회

“여자선수들과 함께 뛰는 경기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지난 3일, 한국대학여자축구클럽연맹(KUWFCF)이 주관하는 제1회 파이널 매치가 여의도의 운동장에서 열렸다. 2018년 상반기 연맹 주관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서울대학교, 인하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총 3개 팀이 참가했다. 특히 이날 이벤트 경기에는 국회사무처 축구 동호회가 초청을 받아 연맹 드림팀을 상대로 3-0 승리를 거뒀다. 경기결과와 나이, 성별, 직업을 떠나 참가자 모두가 축구를 통해 하나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경기에 참여한 국회사무처 축구동호회 차인창(30·국회법제사법위원회) 총무는 “축구회를 통해 연락을 받았다. 대회의 취지가 워낙 좋아 참여하게 되었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실 여성분들과 축구해 본 것이 오늘이 처음인데, (여자 대학선수들이) 남자보다 탄탄한 기본기를 갖고 있어 깜짝 놀랐다”며 소감을 밝혔다. 평소 한국의 여자축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최근 들어 관심이 많아졌다. 이민이, 지소연 선수처럼 유명한 선수가 생기고 미디어에 노출되는 횟수도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하영 대학생 명예기자 poolmoon7@naver.com

준우승에도 빛난 ‘SNUWFC’ 새 캡틴 윤지은

(서울대 여자축구팀)

승부차기 끝에 인하대에 석패

지난 3일 여의도, 길거리의 낙엽이 지고 세상이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는 때에도 이들의 축구공은 변함없이 계속 굴러갔다. 한국대학여자축구클럽연맹(KUWFCF)이 주관하는 제1회 파이널 매치에 참가한 선수들의 이야기다. 이번 대회는 2018년 상반기 연맹 주관대



윤지은
풍성했다.

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인하대(INHA-WICS), 서울대(SNUWFC), 이화여대(ESSA) 등 3팀이 참가했다. 이밖에도 국회초청팀과 KUWFCF 드림팀의 이벤트 매치까지 볼거리가 풍성했다. 인하대와 서울대가 만난 결승에서는 연장

전과 승부차기 끝에 인하대가 왕좌에 올랐다. 비록 아쉽게 패했지만 좋은 활약을 펼친 서울대의 주장 윤지은(체육교육·17)을 만났다. “나에게 축구란 SNUWFC”라고 당차게 밝힌 윤지은은 이번 대회부터 완장을 찬 신입 주장이다. 특유의 파이팅으로 팀원들을 독려한 그의 활약에 힘입어 서울대는 대회 3경기에서 1실점만을 허용했다. 윤지은의 활약은 그라운드 밖에서도 이어졌다. 서울대는 올해 17학번을 중심으로 세대교체가 진행됐고 교환학생들도 팀에 합류하면서 팀 전체가 큰 변화를 맞았지만 서울대는

준우승이라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윤지은은 “선배 언니들과 주장단 및 팀원들이 잘 참여해주고 많이 도와준 덕”이라며 동료들에게 공을 돌렸다. 윤지은은 “올해 거둔 성적에 비해 준우승은 다소 아쉽지만 부상 없이 다들 열심히 뛰어서 만족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지은은 “대회의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에 앞서 SNUWFC를 모든 팀원들이 즐겁게 축구를 하고 향상 오고 싶어 하는 팀으로 만들고 싶다. 축구에 있어서 이 팀은 내 전부다”라고 대답했다. 이은선 대학생 명예기자 didms456@naver.com